

배성근 作, 〈금강반야바라밀경〉. 작가는 5천447자에 달하는 〈금강경〉을 한 자 한 자 금문체로 옮겨 완성하는 데 1년이 걸렸다.

리뷰 | 배성근 서예가 9회 개인전

365일 一念으로 쓴 〈금강경〉

4.18~23 울산문화예술회관 개인전서 40여 점 전시
금문체 5천447자 〈금강경〉 원고 포함 1년 6개월 걸려 완성
지금까지 다양한 서체로 〈금강경〉 10 차례 옮겨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금문체의 아름다운 조형미로 그려낸 〈금강경〉을 만난다. 14폭의 병풍에 담긴 〈금강경〉은 중견 서예가 배성근 씨의 작품으로,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에서 열린 그의 아홉 번째 개인전을 통해 선보였다. 6개월의 원고 작업을 포함해 총 1년 6개월에 걸쳐 완성된 역작이다.

〈금강경〉 第十分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의 한 문장,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나무꾼이었던 육조 혜능은 우연히 듣게 된 이 한 문장으로 출가하게 된다. 오조 홍인은 "〈금강경〉만 몸에 지니고 있어도 곧 스스로 견성하고 성불하리라."고 했다.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성불'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읽고 쓰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더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해서 많은 불자들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한다. 하지만 〈금강경〉 사경은 '일념', '일심'이 아니면 완주하기 어려운 일이다.

중견 서예가 우보 배성근 씨는 '고전을 거부하지 않고,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를 주제로 이번 전시를 열었다. 병풍 4벌을 비롯해 대작, 소품 등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 때마다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선보였던 배 서예가는 이번 전시에서 〈금강경〉을 비롯해 〈동다송〉, 〈화엄경약찬게〉 등 불교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14폭 병풍에 담긴 금문체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사전 원고 작업을 포함해 총 1년 6개월에 걸쳐 완성한 역작이다. 배 서예가는 모두 5천447자에 달하는 〈금강경〉을 금문체(청동기에 주조되거나 새긴 문자)로 완성했는데, 경전의 글자 한 자 한 자를 자전에서 찾아 금문체로 옮겼다. 특히 자주 반복되는 글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옮겨 적어 시각적인 지루함을 덜고 조형미를 극대화했다. 또한 오자와 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금강경〉을 금문체로 옮기기 전에 각 글자의 금문체를 자전으로 확인한 후 한 자 한 자 미리 적는 원고 작업을 거쳤다. 원고 작업만 6개월이 걸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 작품의 원고 초안도 함께 전시됐다.

배 서예가는 지금까지 각기 다른 서체로 열 차례 〈금강경〉을 썼다.

"〈금강경〉은 힘든 작업입니다. 특히 금문체로 옮기는 작업은 그 중에서도 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씁니다. 힘든 만큼 보람도 크지요. 글씨를 쓰는 일 자체가 수행한다는 개념이 아니면 끝까지 할 수 없는 일이죠."

배 서예가는 다른 글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금강경〉 등 경전을 옮기는 일은 단순히 글씨를 쓰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경전 한 자 한 자에 담긴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며, 법향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금강경〉은 많은 글자를 써야하기 때문에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달라지지 않기 위해선 처음 마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마음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작품은 날아가는 것이다. 그가 어렵지만 〈금강경〉을 여러 차례 써온 것은 여러 가지로 〈금강경〉이 가진 매력과 의미 때문이다.

이번 〈금강경〉은 금문체로 썼는데, 금문체는 조형미가 뛰어난 서체로 서예가들이 작품에 많이 쓰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서체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이 그 만큼 어렵다.

배 서예가는 이번 전시에서 〈금강경〉 외에도 전서, 예서, 행서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존심', '심곡', '진실'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배 서예가는 앞서 말한 이번 전시의 주제에 대해 "서예의 기초와 기본을 지키되, 현재의 정서와 시대성을 수용하겠다는 다짐이다"며 "기와집에만 어울리는 서예가 아닌, 현대의 주택에도 어울릴 수 있는 서예를 하겠다."고 했다.

행서, 예서, 전서 등 모든 서체를 섭렵한 배성근 서예가는 이번까지 아홉 차례 개인전과 20여 차례의 초대, 단체전을 열었다.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 전북서예대전 심사위원장, 대한민국 서예대전 행서 심사 분과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우보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흐르는 물 위에 발자국 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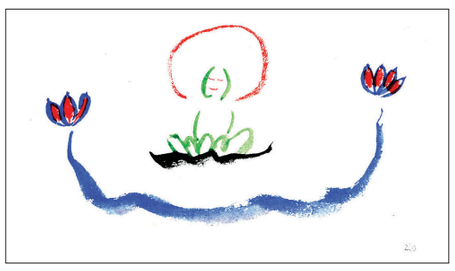
공유스페이스 선+ 재개관기념 초대전
지운스님 '흐르는 물 위에~' 展
2018년 1월 17일(수)부터 30일까지

갤러리 '공유스페이스+'는 1월 17일부터 30일까지 다시 개관기념 초대전, 지운 스님의 '흐르는 물 위에 발자국 찍기' 展을 연다.

불교와 전통문화 그리고 현대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마당을 펼치기 위해 다시 개관한 '공유스페이스 선+'는 지난 10년 동안 비영리 갤러리로서 선(禪)을 중심으로 한 미술 작품을 전시해왔던 스페이스 선+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새 이름의 공유스페이스 선+가 마련한 첫 번째 초대전으로, 지운 스님이 현대인의 불편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출간한 책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1〉, 〈명상 지혜를 논하다 2〉에 수록된 그림의 원화들과 글을 선보인다. 또한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아우르는 생활 속 실천 명상시간도 진행한다.

운성 대강백의 맥을 이은 지운 스님은 송광사, 동화사 강주와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기본선원 교선사(敎禪師)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화사 율주, 보리마을자비선명상원 선원장을 맡고 있다. 1회의 선화전과 8회 사진전을 열었으며, 〈찻잔 속에 달이 뜨네〉 〈차 수행법〉 원측소에 따른 〈해밀심경〉 초판본 등 다수의 저서와 번역서가 있다. 문의 / 02-732-0732 박재완 기자



지운 作, '흐르는 물에~ 3'/수묵담채

제4회 불교무용대전 참가 공모

공모 접수 1. 11~2. 1 오후 6시까지
불교무용대전 4. 6~22 / 27, 28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불교무용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제4회 불교무용대전의 공모를 진행한다.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불교무용대전은 4월 6일부터 22일까지 성균소극장(매주 금~일)에서, 27일과 28일은 남산국악당(금, 토)에서 진행된다.

공모 접수 기간은 1월 11일(목)~2월 1일(목)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에서 양식을 받아 이메일(factory2013@naver.com/김민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불교를 소재로 한 모든 무용의 발표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전통과 창작, 단독과 합동공연 분야에서 현대, 발레, 한국 등 모든 장르가 가능하다. 시상 내역은 대상(조계종 총무원장상), 최우수작품상(한국춤예술센터장상), 비평가상 등이다. 우수작에 한하여 추후 불교축제 및 사찰공연에 추천된다. 문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02)2011-1770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 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 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 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 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응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